

Work & Workforce Architecture 요약 카드

『일은 누가 하는가』 독자 자료 01

Work & Workforce Architecture란

AI 시대, 조직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**일과 사람, 책임을 함께 설계**해야 합니다. Work & Workforce Architecture는 이 재설계를 다섯 단계의 흐름으로 정리한 프레임워크입니다.

다섯 단계 흐름

Work → Capability → Workforce Source → Responsibility → Judgment

단계	질문	설명
1. Work	이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	AI 도입 이후에도 남는 일, 없어지는 일, 새로 생기는 일을 구분해 “일”의 단위를 다시 정의한다
2. Capability	이 일을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?	개인의 Skill이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의 구조 (Capability)를 정의한다
3. Workforce Source	이 역량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?	Build(육성) · Borrow(외부 전문가) · Buy(채용) · Bot(AI/자동화) 중 무엇으로 조달할지 판단한다
4. Responsibility	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?	사람과 AI가 함께 일할 때, 결과물의 검토·승인·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
5. Judgment	이 일을 다음 단계로 넘겨도 되는가?	앞의 네 단계에서 내린 판단들이 실제로 “끝났는지” 확인하고 기록한다

이 카드를 쓰는 법

1. 지금 조직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업무 하나를 고른다.
2. 다섯 단계 질문을 순서대로 팀과 함께 답한다.
3. 답이 막히는 단계가 있다면, 그 단계가 바로 지금 조직이 다시 판단해야 할 지점이다.